

여성공무원 할당제 도입

세추위 확정...내년부터 5급 15% 7급 20%

내년부터 5·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공무원 할당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세계화추진위원회는 5급 공무원의 경우 96년부터 3년간 채용정원의 15%를, 2000년대부터는 20%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5일 이 안에 따르면 여성공무원 할당제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는 적용되고 사법고시와 기술고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7급 공무원의 경우 96년부터 20%를 여성으로 뽑는 안을 마련했다.

그러나 공기업 등에서의 할당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한편 5급의 경우 3년 동안은 여성 응시자의 점수가 커트라인의 80%선에 이르지 못할 경우 15%에 미달되더라도 뽑지 않고, 2000년 이후에는 커트라인이 90% 이하로 떨어지면 20%를 채우지 않아도 채용하지 않으며, 7급의 경우 96년부터 90%에 못 미칠 경우 뽑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.

김미경 기자